

투데이 칼럼

목숨 건 대북 송금

북한에는 '한라산 즐기기'라는 말이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을 가족으로 둔 북한 주민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최근 북한에서는 '한라산 즐기기'가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롭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한국에 정착한 가족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라산 즐기기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결혼 상대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면서 탈북민이 어떻게 북한 가족에게 돈을 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고립된 국가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갈 수 없는 땅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곳에 가족을 둔 탈북민들은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 매개체는 바로 '대북 송금'이다. 보통 탈북민들은 탈북 후 약 1, 2년 안에 바로 송금을 시작한다. 지금은 탈북민 3만4천 명 시대다. 탈북민 10명 중 6명은 국내 입국 이후 대북 송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금 횟수는 연간 1회가 65%로 가장 많다. 1회 평균 송금 금액은 201만 원에서 300만 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 돈 200만 원이면 북한에서 쌀 약 800kg을 살 수 있는 금액이다.

송금 목적은 북한에 남겨진 가족



정복규
논설위원

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품었다. 대북 송금 방식도 궁금하다. 보통 송금은 탈북자 출신 국내 브로커와 중국 내 브로커 그리고 북한 내 브로커까지 총 세 단계를 거친다. 탈북민들이 국내 브로커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각각의 브로커들이 수수료를 뺀 금액을 북한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한국 돈으로 보내면 먼저 중국에 가서 위안화로 교체되어 북한에 중국 돈으로 들어간다.

송금에 걸리는 시간도 대단히 짧다. 한국에서 보낸 돈이 당일 안에 북한 가족에게 전달된다는 응답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돈을 보낸 탈북민은 가족과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신 여부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북한 거주 당시 송금을 받은 경험에 있는 탈북민들은 전화 확인은 필

수했다고 이야기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북 송금 시스템이 2010년대 초 대규모로 탈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갖춰진 것으로 분석한다.

탈북민들이 2010년 초반에는 거의 연간 3천 명 가까이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붕괴된 경제를 회복하기 바빴던 북한 당국 역시 탈북민 송금에 대한 강력한 단속까지 벌일 여력은 없었다.

한국 정부 역시 인도주의적 차원 등을 고려해 현재까지도 탈북민의 대북 송금 부분은 묵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내진 돈들이 탈북민 가족의 경제 사정 외에 북한 주민 인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강력한 내부 결속을 강조하며 탈북민 대북 송금 단속을 강화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부터는 큰 변화가 감지됐다.

북중 국경 차단과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강력한 처벌이 더해져 대북 송금이 줄어든 것이다. 탈북민 대북 송금 비율은 2019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22년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진 않았다. 위험성 커지기 때문에 송금 일을 그만두는 브로커가 늘면서 수수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탈북민 대북 송금을 두고 종종 탈북민과 브로커 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얼마 전 국내에선 대북 송금 일을 하던 브로커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북한 가족들이 먼저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탈북민 가족이 보내주는 돈이 유일하다.

하지만 탈북민 대북 송금이 2010년대처럼 활성화되지는 못할 거란 전망이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다. 송금 문제는 단순히 돈만 가는 게 아니다. 여러 정보가 같이 전달된다. 송금 등을 원천 봉쇄하여 외부 정보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설

구제책 없는 리딩방 사기사건

'주식 리딩(Leading)방'이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에서 종목 추천해주거나 투자 조언을 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수수료를 받는 온라인 유사 투자 자문 공간을 말한다.

요즘 투자 정보를 공유한다며 대화방에 사람을 모으는 이른바 '리딩방'에서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예방법이 유일한 대책이다.

최근 자신을 유명 투자 전문가로 '교수'라고 소개한 사람이 주식 강의를 해주겠다고 속이면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SNS에서 주식 정보가 담긴 신간 도서를 무료로 나눠준다는 광고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피해자만 150명이 넘고 피해 금액도 100억 원 이상이다. 아무리 주식 강의를 해준다고 해도, 큰돈을 맡기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혐의자는 실제 상장 예정인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 뒤 휴대전화에 특정 거래 앱을 내려 받게 했다. 앱 화면에서는 해당 공모주를 2만 주 넘게 매정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출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앱 자체가 가짜였던 것이다.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수익을 얻었다는 후기를 매크로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올리기도 했다. 수익금을 조금씩 돌려주기도 한다.

더 큰 돈을 투자하게끔 하려고 수익금을 일부분 돌려주면서 실제로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수익금은 또 다른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이다.

이는 폰지사기, 즉 돌려막기 구조만 잘 이해해도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그걸로 뒷사람들한테 수당을 주면서 계속 끌어들이다가 한계가 오면 정리하고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것이다.

위기의 도심 속 비둘기

도심 속 비둘기가 위기를 맞았다. 어느 70대는 15년째 자신의 집 옥상을 찾는 비둘기에게 매일 밥과 물을 챙겨주고 있다. 새들은 이곳에서 배를 채우고 목욕을 하고 쉰다.

그러나 이웃 주민과의 갈등도 겪었다. 한 주민이 독을 섞은 것으로 추정되는 비둘기 기피제를 옥상과 마당에 던져 놓는 일이 있었다. 상당수 비둘기들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 비둘기에게 불임 묘이를 주는 묘임도 생겨났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면서 동물보호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수질, 수생태계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노력에서 야생동물 등 주변 생태계에 위협이 있다. 비둘기의 개체 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무조건 제거나 혐오가 아닌 이를 최소화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한다. 한때는 비둘기 집을 지어주는 운동도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비둘기는 유해 조수가 되고 말았다.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비둘기 기르기를 장려까지 했다. 하지만 비둘기는 다른 조류에 비해 비교적 번식 성공률이 높다.

수가 늘면서 건물 부식, 문화재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결국 2009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다. 민원은 배설물·깃털(41%)이 가장 많다. 동물단체들은 먹이주기 금지보다 불임 묘이 급여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이탈리아, 스웨인 등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임 사료는 까치, 참새 등 다른 야생동물 등 주변 생태계에 위협이 있다. 비둘기의 개체 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무조건 제거나 혐오가 아닌 이를 최소화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한다. 한때는 비둘기 집을 지어주는 운동도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비둘기는 유해 조수가 되고 말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고문

봄철 산행 준비는 이렇게 하세요

추운 겨울이 가고 햇살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절기 '춘분'. 봄이 찾아왔다. 이와 함께 따스한 봄기운을 만끽하려는 산중객이 주말만 되면 배낭 하나 메고 산으로 들로 떠나는 모습을 본다.

그러나 이러한 들뜬 기분에 취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다 보면 위험해질 수 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자신의 체력에 맞는 산과 정구 등산로를 선택하여 무리한 산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 하산하도록 철저히 계획해야 한다.

둘째, 날씨 및 등산코스에 알맞은 복장을 착용하고 결을 준비하여 휴식이나 하산 시에 체온 유지를 해야 한다.

셋째, 산에 오르기 전 준비운동은 필수이며 충분한 음료를 준비하여 탈수



유평수
전주덕진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넷째, 등산 시 음주 산행을 하지 않는다. 음주 산행 시 각종 산악사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음주 산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사고가 발생하거나 조난됐다면 바로 119에 신고하여 조치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국가지점번호나 산악안내표지판을 보고 신고하면 큰 도움이 되나 스마트폰이 있다면 굳이 찾아 헤맬 필요는 없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복원 후 박물관 복귀하는 콩코드 초음속 여객기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브리티시 에어웨이의 콩코드 초음속 여객기가 크레인에 실려 인터레피드 해양항공우주박물관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 여객기는 지난 1996년 뉴욕과 런던을 2시간52분59초 만에 비행, 여객기 세계 최고 속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박물관 전시 중이던 지난해 8월 9일 복구를 위해 브루클린 해군기지로 옮겨진 후 약 7개월간의 복원 과정을 거쳐 복귀했다. 여객기는 다음 달 4일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